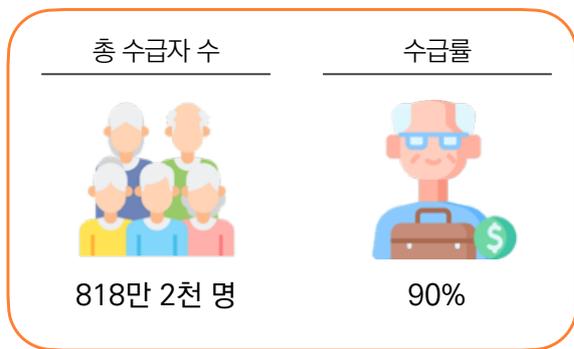




[고령노인의 연금 수령 실태] 고령노인 연금 수급자의 월 수급액, 65만 원!

- 한국은 2024년 12월부터 초고령 사회(고령인구 비율 20%)에 진입했다.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고령인구의 주된 소득인 연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금 통계 결과를 지난 해 8월 처음으로 발표했는데, 이를 통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연금 수급 실태를 살펴본다.
-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약 90%, 818만 2천 명이 기초연금·국민연금·직역연금 등을 1개 이상 수급하고 있었다.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 금액은 65만 원이며, 연금 미수급자까지 포함한 전체 노인 월 평균 연금액은 59만 원으로 나타났다. 또한 수급 중위 금액은 42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금 받는 고령노인 중 50%가 월 42만 원 이하의 연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.

[그림] 고령노인의 연금 수급 현황 (65세 이상, 2022년 기준)



[그림] 연금 수급자의 월 수급액 (65세 이상, 2022년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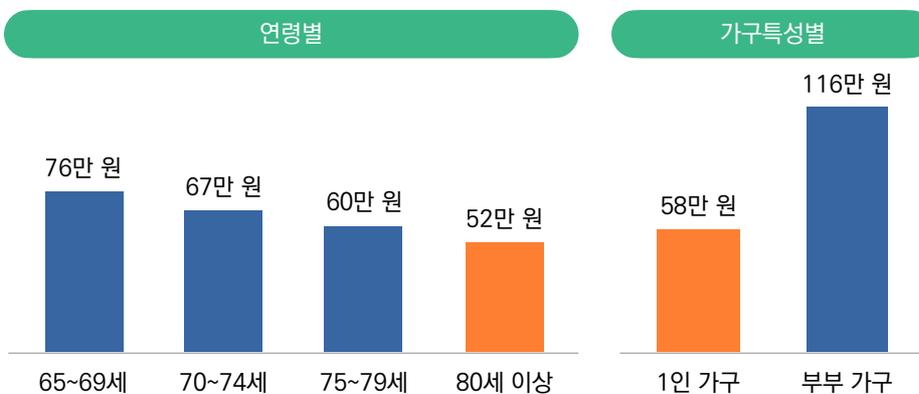
※출처 : 통계청, 2022년 연금통계 결과, 2024.08.22.

*연금 수급금액을 적은 금액부터 많은 금액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중간(50%)에 있는 자의 수급금액

고령 노인의 연금 수급액, 1인 가구 58만 원, 부부 가구 116만 원!

- 연령별로 연금 수급금액을 살펴보면,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급금액이 적었다. 65~69세의 월평균 연금 수급금액은 76만 원, 80세 이상 연령은 52만 원으로 나타났다. 이렇게 연령대 간 수급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연금 종류와 연금의 중복 수급률의 차이로 분석된다.
- 가구특성별 연금 수급금액은 1인 가구가 58만 원으로 부부가구의 116만 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월평균 연금 수급금액 (65세 이상 연금 수급자, 2022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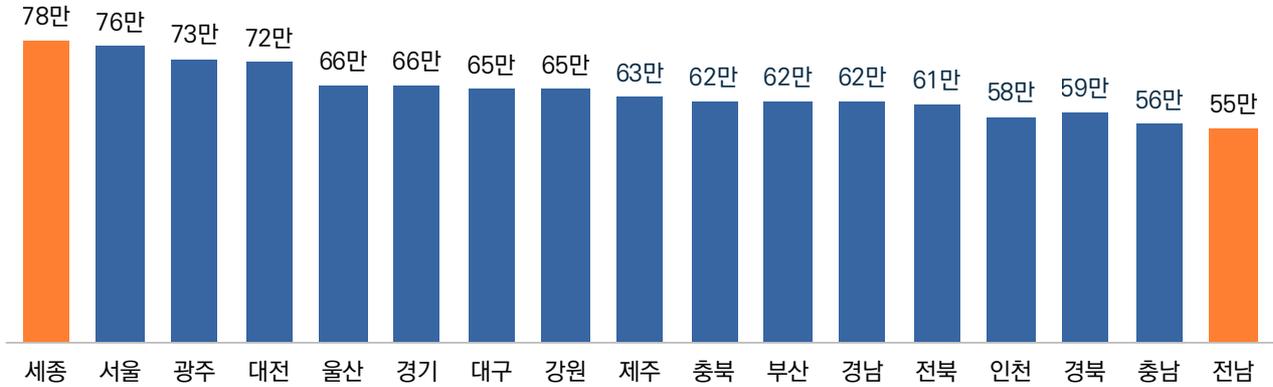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통계청, 2022년 연금통계 결과, 2024.08.22.

전남 지역 노인 연금 수급액, 전국에서 가장 낮아

- 지역별 연금 수급금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, '세종'이 78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'서울'(76만 원), '광주'(73만 원) 순이었다.
- 연금 수급금액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'전남'(55만 원), '충남'(56만 원), '경북'(59만 원) 순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지역별 월평균 연금 수급금액 (65세 이상 연금 수급자, 2022년 기준, 원)



※출처 : 통계청, 2022년 연금통계 결과, 2024.08.22.